



環境汚染과 汚染者 負担原則 (P.P.P.)

丁奎榮

서울市道路局長·技術士·工博
本會副會長

産業化 都市化의 進行에 따라 環境汚染問題가 하나의 커다란 社会的 話題로 登場하였다. 大氣汚染이 環境基準을 超過했는가 하면 水質 또한 地域에 따라서는 上水道用水로서의 適正值를 넘어서 水源으로서의 價値를 威脅하고 있다.

環境汚染이 深刻해짐에 따라 工場에 集塵裝置를 設置하라, 自動車排氣가스를 規制하라, 廢水處理施設을 設置하고 處理를 잘 하도록 監視를 強化하라, 下水處理場을 時急히 建設해야 한다는 等 輿論이 沸騰하고 있다.

그런데 問題는 이와 같이 環境汚染防止施設을 하고 이를 稼動하기 위해서는 莫大한 費用이 드는데 그 費用負擔體制가 안되어 있다는 것이다.

法으로는 되어 있기도 하지만 汚染者의 意識이 이를 지키려고 하지 않으므로 그 施行效果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公害防止施設을 하고도 이를 稼動치 않는 것이 그 例이며, 下水處理費用調達을 위한 下水道使用料徵收問題에 대하여 新聞 放送의 報道가 批判的인 見解를 갖는 것 같은 印象이 짙기 때문이다. 市民의 새로운 負擔이 되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그 費用은 누가 負擔해야 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答은 汚染者가 負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汚染者 負擔原則」(Polluter Pays Principle)이라고 한다.

그런데 一般的으로 汚染者는 工場이나 自動車 等으로만 생각할 뿐 市民 누구나가 汚染者라는 事實을 忘却하고 있다는 것이다. 집에서는 연탄이나 기름을 땀으로써 煤煙을 排出하여 大氣를 汚染시키고 물을 使用하거나, 便所를 使用함으로써 下水를 排出하여 河川을 汚染시키며, 登山이나 들놀이로 가서는 飲食物 찌꺼기나 不必要해진 물건을 함부러 버려 自然을 더럽힌다. 大氣汚染物質負荷量의 約 45%를 家庭이 차지하고, 水質汚染物質의 約 79%가 生活下水라는 것이 이를 證明해 준다. 그리고 보면 環境汚染源은 바로 누구나의 「나」라고 認識해야 하며 따라서 環境汚染防止費用도 누구나의 「나」가 負擔해야 하는 것이다. 工場은 工場대로 自動車는 自動車대로 市民은 市民대로 汚染源이 되는 만치 汚染防止費用을 負擔할 覺悟를 해야 한다.

環境汚染의 被害에 例外者는 없다. 富者나 가난한 者를 가려 주는 것도 아니다. 누구나 空氣를 마시지 않고 또 물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라면 모두가 우리의 環境을 保全하기 위하여 기꺼히 費用負擔을 할 覺悟를 새로이 하자. 그리하여 祖上으로부터 물려 받은 우리의 錦繡江山이 健康한 제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두가 힘쓰자.